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

Farmers' Views on the Farming in Seoul

* 황한철(한경대) · 최수명(전남대) · 박선용(서울농업기술센터)

Hwang, Han Cheol · Choi, Soo Myung · Park, Sun Yong

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farm area in Seoul, in providing fresh vegetables, a pleasant environment and a goo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greatly reduced the farm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rmers' intentions and attitudes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lanning the strategy of urban agricultural development. Al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tingency tables and the Chi-square test using the SAS computer statistical package. Farmers' views on the farming in Seoul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tatus. Therefore, agricultural strategies in there should be considered their different attitudes.

I. 서론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도시민의 먹거리를 생산·제공하는 농업적 기능은 물론 생태계 보전, 오염제거, 기상조정, 토지보전 등의 환경보전 기능과 교육, 문화, 사회 등의 정서적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도시민의 휴식·체험공간으로도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개발의 압력,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잠식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그 정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거래 및 소유가 대폭 완화되고 또 앞으로도 농지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내 규제 역시 상당히 완화되고 있어 농지전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발전 과정 속에서 도시·산업적 토지수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에 따른 농지 전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내에 혼재하고 있는 농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도시농업은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건전한 도시농업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농업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 의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만족도, 농업 장애요인 등의 영농의식 등을 조사·분석하고 장차 서울지역의 농업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서울지역의 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하여 도시지역 영농활동에서의 장애요인과 각종 영농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지역별, 재배작목별, 농지규모별, 연령별, 농지소유형태별 각각 조사·분석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경농과 임차농의 경우는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단위 작목반 집단 영농교육시 조사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단체설문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부채지주의 경우는 개별 면담이 어려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률이 저조하여(20%) 전화를 통한 면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174매(전체농가 2,526중 6.90%)가 수집되었는데 농지소유형태에 따라 자경농가 44매(25.29%), 임차농가 84매(48.28%), 부채지주가 46매(26.43%)로 집계되어 현재의 농지소유형태별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강동, 송파구) 56매(32.20%), 서부지역(강서, 양천구) 28매(16.09%), 남부지역(강남, 서초구) 60매(34.48%), 북부지역(중랑, 은평구) 22매(12.64%), 기타지역이 8명(4.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배작목별로는 수도작농가 18매(10.35%), 채소농가 56매(32.18%), 화훼농가 30매(17.24%), 과수농가 19매(10.92%), 축산농가 5매(2.87%), 부채지주(26.4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이하 28매(16.10%), 41-50세 51매(29.30%), 51-60세 61매(35.10%), 61세 이상이 34매로(19.50%)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SAS통계패키지를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 분석

1. 서울지역의 농업현황

서울특별시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농지들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에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중랑구 일대의 과수지대, 남부지역의 채소 및 화훼지대, 서부지역은 수도작 및 채소지대, 동부지역이 채소 및 화훼지대 등, 전체적으로 4개의 농업지역만으로 나뉘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농지면적은 1998년말 현재 2,106ha로(답 753ha, 전1,353ha) 전체 행정구역면적(60,527ha)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호수는 2,526호이며 농가인구는 10,633명이다. 최근 5년 사이 농가호수는 25% 감소하였고, 농가인구 역시 27.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농지면적은 4% 감소로 그 추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주요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903ha→658ha)하는데 비해 채소 재배면적(1,416ha→1,855ha)과 화훼재배면적(206→277ha), 과수 재배면적(66ha→83ha)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전체 농지면적이 계속 감

소한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집약농업의 형태인 시설하우스 재배와 고소득의 과수재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도시농업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농 만족도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규모, 지역농업여건, 영농소득, 농업전망 등 영농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표-1>과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4.25%), 만족(21.55%), 보통(40.88%), 불만(25.61%), 매우 불만(7.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이상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농지소유자인 자경농가와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경농가의 불만도(불만과 매우 불만, 42.70%)는 임차농가의 불만도(23.9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농지규모, 농업여건, 농업소득, 농업전망 등 각 세부 항목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1> 농지소유 형태별 영농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항목별 | 구분 | 응답수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 비고 |
|------------|--------|-----|-------|-------|-------|-------|-------|--------------------------|
| 농지규모 | 자경농가 | 41 | 12.20 | 34.15 | 31.71 | 14.62 | 7.32 | $x^2=27.399$ P =0.007 |
| | 임차농가 | 82 | 1.22 | 39.02 | 57.32 | 1.22 | 1.22 | |
| | 소계(평균) | | 6.71 | 36.59 | 44.52 | 7.92 | 4.27 | |
| 농업여건 | 자경농가 | 41 | 2.44 | 26.83 | 26.83 | 31.70 | 12.20 | $x^2=14,489$ P =0.070 |
| | 임차농가 | 83 | 14.46 | 25.30 | 38.55 | 18.08 | 3.61 | |
| | 소계(평균) | | 8.45 | 26.07 | 32.69 | 24.89 | 7.91 | |
| 영농소득 | 자경농가 | 37 | 0.00 | 8.11 | 45.95 | 35.13 | 10.81 | $x^2=11.256$ P =0.507 |
| | 임차농가 | 81 | 2.47 | 14.81 | 56.79 | 22.23 | 3.70 | |
| | 소계(평균) | | 1.24 | 11.46 | 51.37 | 28.68 | 7.26 | |
| 농업전망 | 자경농가 | 39 | 0.00 | 20.51 | 20.51 | 46.16 | 12.82 | $x^2=19,438$ P =0.078 |
| | 임차농가 | 81 | 1.23 | 3.70 | 49.38 | 35.81 | 9.88 | |
| | 소계(평균) | | 0.61 | 12.11 | 34.95 | 40.99 | 11.35 | |
| 소계 (평균) | 자경농가 | | 3.66 | 22.40 | 31.24 | 31.90 | 10.80 | $x^2=10.341$ P =0.035 |
| | 임차농가 | | 4.84 | 20.70 | 50.51 | 19.33 | 4.62 | |
| 전 | 체(평균) | | 4.25 | 21.55 | 40.88 | 25.61 | 7.7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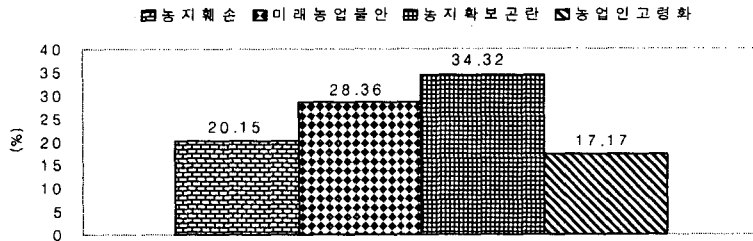
연령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불만족 요소가 강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영농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부지역(보통이상 73.62%), 남부지역(74.17%), 북부지역(73.22%)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지대인 서부지역(49.05%)은 매우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4.071$, P= 0.001).

재배작목별 농업소득과 농업전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화훼재배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보통이상 71.52%), 과수농가(보통이상 62.25%), 채소농가(보통이상 61.25%)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수도권 농가(보통이상 37.49%)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만족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지대인 서부지역 성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서울지역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서울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장애요인은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34.32%),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28.36%), 도시개발에 따른 농지훼손(20.15%), 농업인의 고령화(17.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지역 농업발전의 장애요인

그리고 자경농가는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46.51%), 농업인의 고령화(27.91%), 농지면적 감소(18.6%),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6.9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임차농가의 경우는 안정된 농지확보 곤란(46.34%), 농지훼손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21.95%),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19.51%), 농업인의 고령화(10.98%) 순으로 나타나 자경농가와 임차농가 사이에 큰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차농가들에게는 안정된 농지확보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며, 자경농가의 경우 미래농업에 대한 불신으로 농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농지확보 곤란(52.27%), 서부지역(57.14%)과 북부지역(43.75%)은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이 농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은 각 항목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농업특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화훼와 채소의 주 생산지역인 동부지역의 경우 임차농가의 비율이 높고 농지의 집약화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도작과 과수농가가 대부분인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자경농가가 비교적 많은 등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작목별로 살펴보면 상기의 지역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 수도작 농가의 경우 미래농업에 대한 불안(47.06%)과 농업인의 고령화(47.06%)를 지적하고 있고, 임차농가 비율이 높은 화훼농가와 채소농가의 경우 안정된 농지확보의 곤란(화훼농가 46.88%, 채소농가 42.62%)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과수농가의 경우 각 항목별 비교적 고른 응답률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지역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농지소유형태별, 재배작목별,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농지규모, 농업여건, 영농소득, 농업전망 등에 대한 만족도와 도시농업의 장애요인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업인의 특성은 물론 지역특성과 재배작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농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도시농업의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가 서울지역 농업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